다카사고시

다카사고 지역은 예로부터 육로와 수로가 정비되어 교통의 요충지로 번창해 왔습니다. 에도시대(1603-1867)에는 소금이나 석재 등의 상품을 생산하는 작은 마을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항구와 농장, 가코가와의 물류거점 등도 정비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히메지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다카사고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일본 전통예능인 노(能)의 일인자로 불리는 제아미 모토키요(1363-1443)가 쓴 작품 '다카사고'의 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카사고」라는 노래는 부부의 장수와 행복, 화합을 축복하는 것으로 일본 전통 결혼식에서 자주 불립니다. 다카사고 신사 경내에는 극 중에서 '상생의 소나무'로 등장하는 뿌리가 합쳐진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한 쌍의 소나무에 깃든 정령인 조(尉)와 우바(姥)라는 노부부는, 부부의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고 있으며 상생의 소나무 옆에 있는 조우바신사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조와 우바의 전설과 소나무의 존재가 널리 알려진 다카사고 지역은, 부부화합에 관한 많은 전설이 남아있어 '인연 마을'(인연이 맺어지는 마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